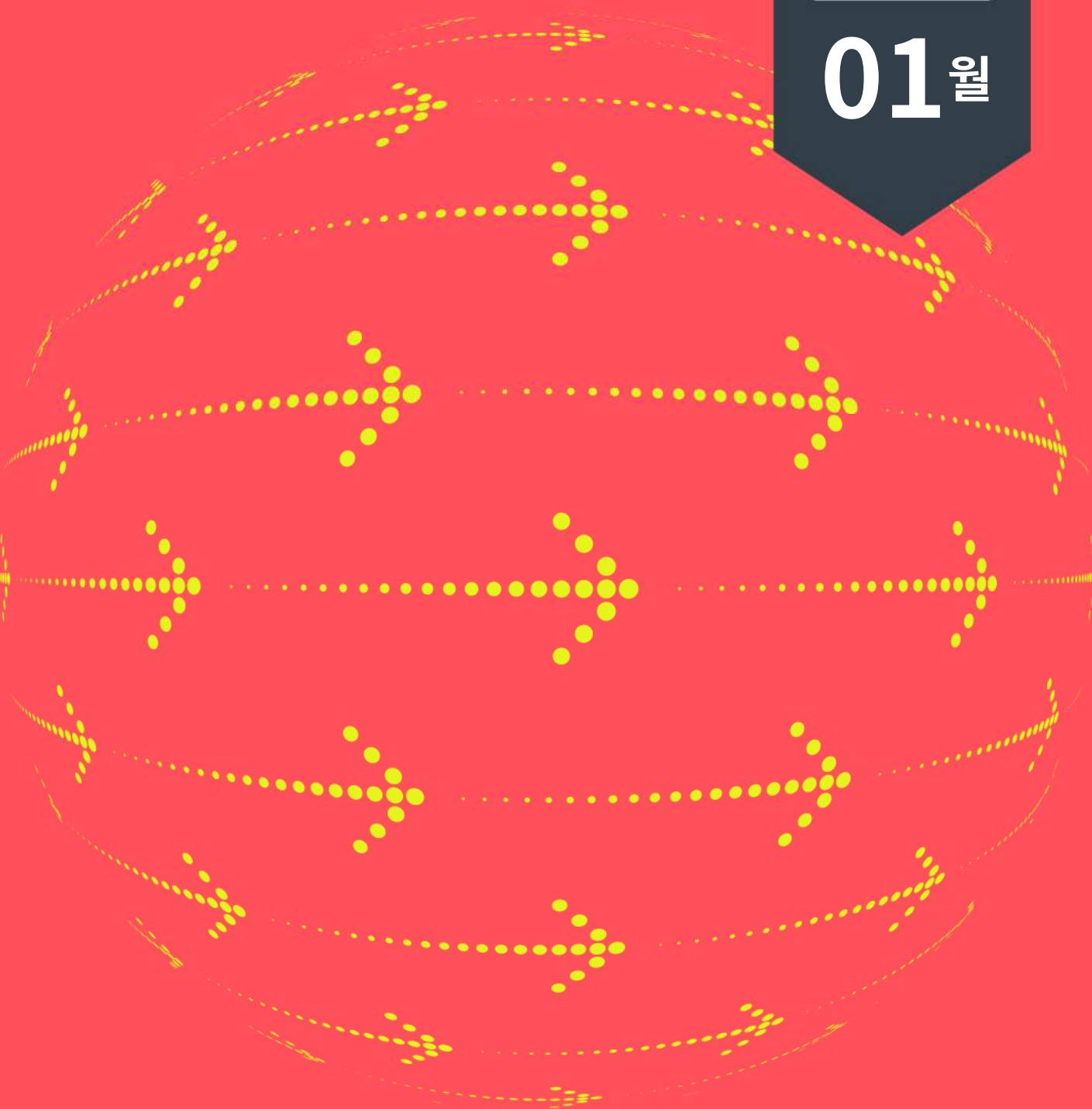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월간동향

2023

01월



목차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1. IEEE, 2050년 이후의 IEEE 역할을 제시하는 백서 발간	12월 01일
2. 유럽연합, 유럽표준화시스템 태스크포스(TF) 구성	12월 20일
3. EU, 단일유럽시장(European Single market) 30주년 맞이	01월 02일
4. 미-일 안보협의회의(SCC), 2+2 공동성명 통해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 사이버보안 표준 포함	01월 11일
5.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1/14 발효 - 디지털경제 표준협력 포함	01월 13일
6. 중국, 데이터 산업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16개 부처 공동고시	01월 13일
7. 독일 DIN-DKE-VDI, 순환경제 표준화 로드맵 발간	01월 19일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1. 미국 NIST, SHA-1(Secure Hash Algorithm) 암호화 알고리즘 폐지	12월 15일
2. 유럽 ETSI, EU 인공지능법 시행에 대비한 백서 발간	12월 21일
3. IEC 시스템평가그룹(SEG 15), 메타버스 요구사항 조사 착수	12월 21일
4. WPC, 브랜드 간 상호운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표준 'Qi2' 발표	01월 03일
5. 미 ATIS-ORAN연합, 모바일 네트워크의 강화된 글로벌 표준을 위한 MoU 체결	01월 13일
6. 유럽 ETSI ISG ENI, 인공지능(AI) 기반 인지 네트워크 백서 발간	01월 09일
7. 중국 CCSA, 정보보호기술 관련 특별작업그룹(ST10) 신설	01월 17일
8. 일본 TTC, '22년 포럼 조사보고서 발표 - 71개 포럼 조사분석	01월 18일
9. 미국 NIST,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발표	01월 26일

[참고 1] 2월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 일정



TTA 홈페이지 > TTA 자료 > 정기간행물 > 해외 ICT 표준화 동향정보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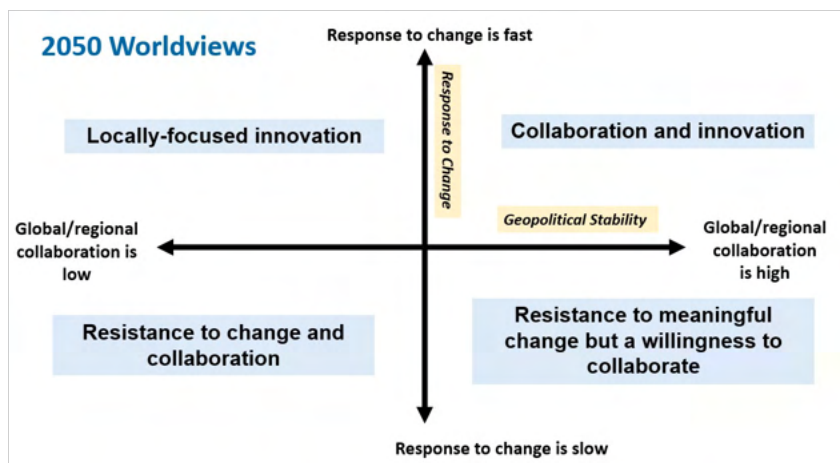
1. IEEE, 2050년 이후의 IEEE 역할에 대한 백서 발간

IEEE는 2022년, '2050 특별위원회(The Ad Hoc Committee on IEEE in 2050)'를 구성하여 2050년 그 이후의 IEEE 역할에 대해 분석한 백서인 '2050년 그 이후의 IEEE(IEEE in 2050 and Beyond)'를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방법론을 사용해 2050년 이후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현·신기술 분야의 변화동인을 조사하여 IEEE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IEEE의 임무가 미래에서도 관련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달성 방식은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IEEE의 핵심 원칙에 대한 지원, 전달 및 관리 구조는 조직의 미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2050년 시나리오 핵심 변화동인으로 '변화에 대한 반응도(Response to Change)'와 '협력 의지(Geopolitical Stability)'를 축으로 하여 4분면을 구성하고 각각의 미래 시나리오 상황을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수준 혁신 채택, 협업 부족: 표준의 중요성 증가 및 신속한 지역화 필요. IEEE의 경우, 지역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경쟁 필요
- 협업과 혁신 공존: 기술 장벽이 없으며, 소프트웨어(특히, AI) 및 메타버스, 가상 현실, 정보가 중요
- 변화에 저항적이나 협업에는 의지적: 기술 혁신 등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표준 및 지리, 기술, 교육, 인도주의의 통합 필요
- 변화와 협업에 대해 저항적: 표준화는 세계적 규모로 필요하지 않으며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



[출처] 2050년 이후의 IEEE 백서



기사원문

<https://www.ieee.org/about/corporate/ieee-in-2050.html>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계속)

월간동향
2023.01

2. 유럽연합, 유럽표준화시스템 태스크포스(TF) 구성

유럽연합의 표준화시스템은 민관 협력 관계를 통해 EU 정책과 법률을 지원하는 표준들을 제정해 왔다. 이러한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표준화기구(ESO)*는 단기 및 중·장기적 해결책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였다.

*ESO(The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CEN와 CENELEC, ETSI

TF는 다음의 2가지 주제를 다룬다.

- 유럽 정책, 비즈니스 우선순위, 전략적 부문의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조정
- 전반적인 표준개발 및 인용 프로세스의 응답성, 품질, 민첩성 및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 문제 개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상되는 전략적 주제와 표준화의 역할에 대한 조기 토론

- 광범위한 파트너 모집 : 산업계 얼라이언스 등
- 정책, 규정, 자금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 시 표준화 커뮤니티 참여 : 표준화에 관한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 on Standardisation)

2) 운영 절차별 주요 논의 사항

① 표준화 요청(Standardisation Requests)

- . 전문가 그룹 및 ESO의 인지도 향상
- . 미래 표준이 충족해야 할 표준화 요청 범위, 목표, 요구사항의 명확화
- . EC와 ESO 간 합의할 표준 목록
- . 표준에 대한 논의 기한
- . 만료일은 마지막 표준 마감일보다 12개월 이후로 설정
- . 모든 블로킹(blocking) 측면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② 요청된 표준에 대한 초안 작성과 공식 승인

- . HAS 컨설턴트*와 협력 개선, 초안 작업에 대한 블로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체크리스트 개선

*집행위원회는 'New Approach(NA) 컨설턴트' 시스템을 'Harmonised Standards (HAS) 컨설턴트'로 대체 중으로 HAS 컨설턴트는 CEN, CENELEC, ETSI가 작성한 표준이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화 요청을 준수하는지 평가

③ ESO의 공식 승인

- . ESO 동의 후 EN(유럽표준)은 공개의견수렴과 투표를 위해 국가별 표준화기구로 보내짐. TF는 HAS 컨설턴트를 통한 EC 참여의 중요성 강조

④ 인용

- . 표준의 완성 후, EC와 ESO는 ESO의 출판부터 OJEU 인용까지의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기로 합의

⑤ 평가

- . 표준의 적절성에 대해 5년마다 점검, 적절한 조치를 취함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news/2163-a-successful-european-standardization-system>

<https://www.cencenelec.eu/news-and-events/news/2022/brief-news/2022-12-20-tf-action-plan/>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계속)

월간동향
2023.01

3. EU, 단일유럽시장(European Single Market) 30주년 맞이

EU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단일유럽시장을 기념하였다. 단일유럽시장은 30년 동안 회원국 간 경제시장 통합으로 성장과 경쟁력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유럽의 경제적·정치적 글로벌 수준을 위해 지원하였다. 또한, EU 신규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단일유럽시장을 통해 EU는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유럽인의 삶을 개선해왔으며 새로운 영역 개발과 시행 중인 규칙의 적용을 위해 협력 중이다.

-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EU의 ‘Fit for 55(EU 탄소감축 입법안)’ 및 ‘Digital Decade(2030 유럽 디지털 전환 청사진)’를 기반으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시행
- 높은 안전성과 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표준 보장: EU의 규칙과 표준은 종종 전 세계에서 채택되어 유럽 비즈니스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유럽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 측면에서 최고를 향한 경쟁을 장려함
- 전례 없는 속도와 결단력으로 최근의 위기에 대응: COVID-19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와 같은 최근의 위기를 REPowerEU 계획과 같은 공통적이고 조율된 유럽방식에 의존

4. 미-일 안보협의회(SCC), 2+2 공동성명 통해 안보 문제 해결 위한 협의 가속화 - 사이버보안 표준 포함

1월 11일 워싱턴 DC에서 미-일 안보협의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는 2+2*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및 일본의 외무상, 방위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유지에 대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미일 동맹이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양국 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 얼라이언스 현대화: 동맹의 지휘 및 통제 관계 탐구 약속, 평시 국방 분야 협력 강화, 연합군 훈련, 우주·사이버 및 정보보안, 기술 우위 유지
- 파트너십 확대: 다자간 기구 및 협정 등을 통한 역할 강화
- 연합군 방위 태세 최적화: 시설 건설 및 재배치 등

특히, ‘얼라이언스 현대화’ 관련하여 장관들은 동맹을 위한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속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사이버보안 정책 조정을 위한 일본의 조직 창설과 방위산업 사이버보안 대책 표준 제정,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등 국가 사이버보안 태세 강화 계획을 환영하였다.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897



기사원문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265559/joint-statement-of-the-2023-us-japan-security-consultative-committee-22/>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계속)

월간동향
2023.01

5.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1/14 발효 - 디지털경제 표준협력 포함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한-싱 DPA)’이 1월 14일에 발효되었다. 이는 한-싱 DPA 제5조에 의해 양국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명식(지난해 11월) 이후 30일째 되는 날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4개 조항*이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총 34개로 확대되어 AI, 핀테크, 디지털 경제의 표준협력 등 양국이 관심 있는 협력 분야가 포함되었다.

*기존 한-싱 FTA('06년 발효): △정의,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공급, △디지털제품

한-싱 DPA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인증·전자서명, 종이서류 없는 무역 등
-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 온라인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스팸 메시지 규제 등

특히, 디지털 분야 협력으로 AI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개발, 양국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경제 분야 표준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기사원문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6660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계속)

월간동향
2023.01

6. 중국, 데이터 산업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16개 부처 공동고시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 시행을 위한 데이터보안산업 발전 촉진 및 데이터보안 기술 성장, 데이터시장 육성, 디지털중국 건설, 디지털경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6개 부처의 공동 의견을 고시하였다.

공동 의견은 9개 항목과 1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표준시스템 구축 추진'의 세부항목 '데이터보안산업의 핵심표준 공급 강화'에서는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이 데이터보안 관련 표준수립에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국제표준기구 활동 참여와 국내외 공동 개발을 장려한다.

이 외, '데이터보안서비스 확대: 산업 간 표준 상호운용성 촉진 및 데이터 보안 관련 표준 시스템 간 동적 연결 촉진', '국제 교류 및 협력 심화: 일대일로 국가의 표준 융합 및 인증 결과 상호 인정 촉진', '안전조치: 표준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등 데이터 보안 표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기사원문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yj/art/2023/art_a8ef4985d9834d11a5b5495574e60480.html

7. 독일 DIN-DKE-VDI, 순환경제 표준화 로드맵 발간 - 7개 주제 중 디지털화, ICT 포함

DIN(독일표준연구원)와 DKE(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 VDI(독일엔지니어링협회)가 순환경제 표준화 로드맵을 발간하였다. 본 로드맵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로드맵은 독일 환경부(BMUV)의 자금 지원으로 비즈니스, 과학, 공공 부문 및 시민 사회의 550명 이상의 전문가가 개발하였으며, 순환경제 부문이 직면한 과제와 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규범 및 표준을 설명한다.

특히, 표준화 관점에서 독일 경제의 7개 핵심 주제*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디지털화/비즈니스 모델/관리, △전기공학 및 ICT, △배터리, △포장, △플라스틱, △직물, △건물 및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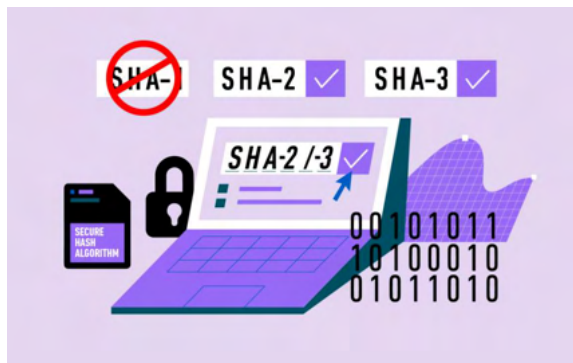
 기사원문

<https://www.vde.com/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1-19-roadmap-ce>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1. 미국 NIST, SHA-1 암호화 알고리즘 폐지

미국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보안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HA-1보다 안전한 SHA-2 또는 SHA-3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였다.



[출처] 기사 원문

- SHA-1은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80-1'의 일부로 1995년부터 사용한 보안 해시 알고리즘 표준. 보안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웹 페이지를 로드할 때 해당 소스의 손상 여부 확인
*FIPS란 정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NIST의 표준 및 지침서로, 180-1은 '02년 8월 철회되었으며 FIPS 180-2로 대체됨
- 강력해지는 알고리즘 공격에 따라 NIST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SHA-1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FIPS 180-5 게시를 통한 SHA-1 사양 제거, 연관된 NIST 간행물 수정, 암호화 모듈 및 알고리즘 검증 전략 개발 등 시행 예정



 기사원문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2/12/nist-retires-sha-1-cryptographic-algorithm>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계속)

월간동향
2023.01

2. 유럽 ETSI, 인공지능 분야의 ETSI 활동 백서 발간

유럽의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는 EU의 인공지능(AI)법 시행에 대비하여, 'ETSI의 AI 분야 활동; EU AI 법 시행 준비(ETSI Activities in the field of AI;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AI Act)'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였다. 본 백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ETSI의 활동 및 향후 계획, ETSI 성과물의 정책 이니셔티브 지원 방법, AI 분야 사회적 과제 해결 활동 등을 다룬다.

- ETSI 관점의 AI 법 초안 관련 표준 정보를 산·학·연·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며, AI 법에 명시된 사회적 과제를 요약하고 관련된 기술위원회(TC)와 산업규격그룹(ISG)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
- AI는 보통 최종 목표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기술별*로 분류한 그룹으로 활동
*Cyber(사이버보안), ISG SAI(AI 시스템보안), ISG ENI(AI 네트워크 아키텍처 통합) 등 13개 AI 관련 기술 연구 그룹 활동 중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2167-etsi-s-activities-in-artificial-intelligence-read-our-new-white-paper>

3. IEC 시스템평가그룹(SEG 15), 메타버스 요구사항 조사 착수

IEC 표준화관리위원회는 메타버스의 표준화 필요성과 요구사항 조사를 위해 시스템평가그룹(SEG 15)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술(인공지능, 햅틱 기술, 홀로그래피, 사물 인터넷, VR 등) 관련 국제표준은 존재하나, 메타버스 전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표준은 없음
- SEG 15는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의를 개발하고 표준화의 필요성을 조사하며 초기 로드맵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함



기사원문

<https://www.iec.ch/blog/exploring-metaverse>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계속)

월간동향
2023.01

4. WPC, 브랜드 간 상호운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표준 'Qi2' 발표

무선 충전 국제표준화단체인 WPC(Wireless Power Consortium)는 고속 충전 및 상호운용 가능한 무선 충전 표준 'Qi2'를 발표했다.

- Qi2는 WPC가 Apple과 협력하여 개발한 Magsafe*와 유사한 기능으로 Android와 iOS 기기 모두 사용 가능한 무선 충전 기술 지원

*충전기를 포함하여 수많은 자기 부착식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무선 표준

- '마그네틱 파워 프로파일(Magnetic Power Profile)'을 장착하여 충전 속도와 효율성을 최대로 개선하였으며 관련 액세서리가 다양화됨



기사원문

<https://www.wirelesspowerconsortium.com/about/press>

5. 미국 ATIS-ORAN 얼라이언스, 모바일 네트워크의 강화된 글로벌 표준을 위한 MoU 체결

미국 ATIS와 오렌 얼라이언스(O-RAN alliance)는 보다 지능적이고 개방적이며 가상화되고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모바일 네트워크로 산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목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오픈랜(Open RAN) 보안과 오픈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신 오픈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
- ATIS와 O-RAN 얼라이언스의 전문성과 리소스를 결합하고 ATIS 오픈랜 표준에 O-RAN 얼라이언스 규격을 채택함으로써 오픈랜 구현을 가속화하고 북미에서의 오픈랜 채택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기사원문

<https://www.atis.org/press-releases/atis-and-o-ran-alliance-broaden-cooperative-efforts/>

<https://www.o-ran.org/press-releases>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계속)

월간동향
2023.01

6. 유럽 ETSI ISG ENI, 인공지능(AI) 기반 인지 네트워크 백서 발간

유럽 ETSI의 ISG ENI(Experiential Networked Intelligence)는 새로운 인지 네트워크의 설계를 설명하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ENI의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가 인지 관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동작을 지능적으로 관리 및 예측, 조정, 최적화하여 운영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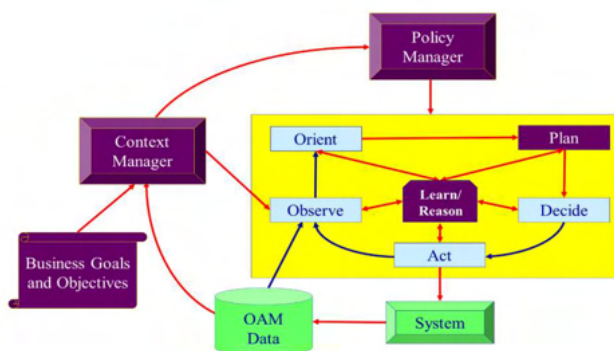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링하여 운영 및 성능 개선을 경험적으로 학습

- ISG ENI는 기계학습 및 추론과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동 경험의 최적화 및 조정을 위한 메트릭(metric)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인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사양을 개발하는 네트워크 머신러닝 관련 산업규격그룹. 현재 기관, 기업, 대학 등 43개의 회원(members)과 22개 참가자(participants)로 구성되어있다.



ISG 회원 및 참가자 ([출처] ETSI, 인지네트워크 백서)

- ‘ENI 인지 관리 시스템(ENI Cognitive Management system)’은 ‘관찰-적응-의사결정-행위’ 모델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계층형폐쇄제어루프의 집합이며, 이러한 확장을 통해 ‘ENI 인지 아키텍처 (ENI Cognitive Architecture)’는 사용자 요구사항 및 비즈니스 목표, 환경 조건 변화에 따라 동작 조정 가능



폐쇄제어루프 개략도 ([출처] ETSI, 인지네트워크 백서)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2170-new-etsi-white-paper-a-novel-cognitive-network-for-ai-driven-automation>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계속)

월간동향
2023.01

7. 중국 CCSA, 정보보호기술 관련 특별작업그룹(ST10) 신설

CCSA(중국통신표준화협회)는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기술 표준개발을 총괄하고 중국의 정보통신 보안능력과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작업그룹인 Special Task Group 10 (ST10)을 신설하였다.

- ST10의 주요 업무 내용은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보호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정보통신 분야(통신망, 인터넷 등)와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통신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코드 응용, 정보통신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정보통신 암호 평가 및 관리 등) 모두 포함
- 정보보호기술 표준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중국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중국정보보호기술 표준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함



기사원문

<https://www.ccsa.org.cn/detail/5366?title=加快推进密码应用标准建设,保障信息通信网络安全>

8. 일본 TTC, '22년 포럼 조사보고서 발표 - 71개 포럼 조사분석

일본 TTC(정보통신기술위원회)의 기술조사 자문그룹(TAG)은 미래 표준화 대상으로 할 분야를 제안하기 위해 매년 주요 사실표준화기구의 ICT 표준화 활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2022년 포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추가된 7개 포럼은 Catena-X, 디지털트윈협회(DTC), 가이아-X, 녹색소프트웨어재단(GSF), HAPS 얼라이언스, Open QKD, Open XR이 있으며, 이전의 6개 포럼은 활동 종료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71개 포럼에 대해 분석
- 조사대상 포럼 중 'IoT·스마트시티' 분야가 가장 많으며, '메타버스'와 '양자암호통신'에 관한 포럼 증가. 주목할만한 분야로는 △IoT·스마트시티, △5G, △커넥티드카, △SDN/NFV, △AI/BigData를 선정



기사원문

<https://www.ttc.or.jp/topics/20230118>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계속)

월간동향
2023.01

9. 미국 NIST,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발표

미국 NIST는 AI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구조적이며 측정 가능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를 발표했다.

- NIST는 민간 및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18개월 동안 AI RMF를 개발해왔으며, 초안에 대한 400여 개의 공식의견을 반영하였음. 다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됨
 - *파트1: 조직 내 AI 위험 프레임화 방법 및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 특성
 - *파트2: AI 시스템 위험 관리에 필요한 기능(거버넌스, 맵핑, 측정, 관리)



[출처] 기사 원문

- NIST는 조직의 AI RMF 1.0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AI리소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프레임워크 사용 방법에 대한 ‘AI RMF 플레이북(AI RMF playbook)’과 추가 지침 개발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발표함



 기사원문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3/01/nist-risk-management-framework-aims-improve-trustworthiness-artificial>

2월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 일정

회의기간		장소	표준화기구	세부조직	분야
23.02.01	23.02.02	온라인	ITU-T	FG AN	자율 네트워크
23.02.06	23.02.10	독일 베를린	ISO/IEC JTC1	SC 35	사용자 인터페이스
23.02.07	23.02.08	온라인	ISO/IEC JTC1	SC 37	생체 인식
23.02.07	23.02.09	온라인	ISO/IEC JTC1	SC 29	오디언, 사진,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코딩
23.02.09	23.02.09	온라인	ITU-T	WP 2/5	EMF, 환경, 기후 행동, 지속가능한 디지털화 및 순환 경제
23.02.13	23.02.17	호주 세인트루치아	ISO/IEC JTC1	SC 38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
23.02.21	23.03.03	스위스 제네바	ITU-T	SG/WP 17	보안

※ 참고사이트

- ITU: <https://www.itu.int/en/events/Pages/Calendar-Events.aspx>- ISO/IEC JTC 1: <https://www.iso.org/committee/45020.html>